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여야가 선거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첫째, 비례성의 원칙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선거구 단수 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 제도는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 2016년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정당 득표에서 각각 25.5%와 35.5%를 득표했고, 실제 의석률은 41.0%와 40.5%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44석, 새누리당은 18석을 더 많이 획득했다.

종교칼럼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전북의 ‘고창’이란 지명은 높고 넓은 들이란 뜻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해바라기 축제, 가을에는 메밀꽃 축제, 특히 봄에는 청보리밭 축제와 유채꽃 축제를 볼 수 있다. 파란 하늘에 초목과 노랑 파랑의 조화로운을 황홀하기만 하다.

성경에 보면 보리밭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가 있다. 롯이라는 여성이 나오는 ‘롯기’이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과 모압 땅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해방된 이스라엘의 한 가족사다.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와 모압에서 온 여자의 이야기다. 한 경건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절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보리밭 러브 스토리다. 죽음

기 고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광주와 대구는 여러 면에서 닮았다. 두 도시 모두 내륙의 거점 도시이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1000m가 넘는 무등산과 팔공산이 위치해 있다. 지역민들은 유난히 야구를 좋아하고 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도시라는 점도 닮았다.

그러나 필자에게 두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시대 정신’이라고 답할 것이다. 광주와 대구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보다는 시대적 가치에 충실해 왔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광주는 동학 농민 혁명과 광주 학생 운동을 이끈 것으로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시대 정신’이라고 답할 것이다. 광주와 대구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보다는 시대적 가치에 충실해 왔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선거 제도 개혁의 해법은 없다

한편 소수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당 득표에서 각각 26.7%와 7.2%를 얻었지만 의석률은 12.7%와 2.0%에 불과했다. 국민의당은 무려 45석, 정의당은 17석 적게 배당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야3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100%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같이 연동의 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정당 투표로 총 의석을 결정한 후, 당선인은 지역구 의석을 먼저 배당한 뒤 그 나머지를 비례 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둘째, 제도의 조화성이다. 무엇보다도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 간의 조화성은 정국 운영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제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채택되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되기 쉽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통상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립 내각이 보편화되어 있어 정국 운영에

별도 문제가 없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여소야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념이 다른 정당들 간의 연정이 쉽지 않아 늘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제약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국민 공감의 원칙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할 경우가 실존될 위험성이 크다. 가령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면 비례성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의원 정수의 과다한 증가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에 배분된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를 기존의 300석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이 발생해 의원 정수는 최소 35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

서도 지난 2017년 9월에 치러진 연방 의회 선거 결과, 명목상 의원 정수는 598명이었지만 초과 의석이 무려 111석이 발생해 총 709명이 선출되었다. 더욱이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정당이 비례구에서만 80석을 배당받았다. 과연 이런 결과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 대표제 폐지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치적 약자인 여성의 국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 대표제를 폐지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한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합의를 통한 선거 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헌법 기판인 중앙선거관위원회에 ‘선거 제도 개혁 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 규모와 상관없이 단 1명만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과반수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 제도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社 說

죽산보 해체 여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엇그제 나주에서 열린 ‘죽산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는 양측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주는 자리였다.

찬성 측은 죽산보가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물 흐름을 가로막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 차원의 해체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죽산보 설치 이전에도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죽산보 설치로 영산강 수량이 크게 늘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다”며 “수질 오염을 이유로 1635여 원을 들인 보를 해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보 설치 이후 영산강 수질이 5급수에서 3급수로 좋아졌다고도 했다. 주민들의 해체 반대 여론은 나주 일대에서 예상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황포돛배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측면

에서도 죽산보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이유는 경제적 논리였다. 보를 해체할 경우 250억 원이 들지만 유지 보수비는 33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처럼 농업용수 제공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의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환경부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것도 마지막 결정 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에 쫓겨 해체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사 평가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해서 해체 여부 결정도 졸속으로 하면 안 될 일이다.

광주 지역 실업률 14년 만에 최고라는데

광주 지역 고용지표를 보면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월 광주 지역 취업자는 73만6000명으로, 1년 전(74만2000명)에 견줘 7000명 줄었다. 공공업(-1000명), 제조업(-1000명) 등 사실상 전 부문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가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9.9%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엇그제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이다.

각종 지표 가운데 우려했던 대목은 실업 부분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금융 위기 직후인 2001년 4만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3만5000명)에 비해서도 7000명이 늘었는데 수치로만 보면 감소한 취업자가 고스란히 실업자로 옮겨 간 셈이다. 실업률 역시 5.3%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 2005년 3월(5.5%)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다만 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등에 제

정을 투입하면서 공공서비스업 분야 등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기는 했다.

광주 경제구조상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도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00여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3.8%)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이제 추락한 고용지표를 회복시킬 단기 처방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는 광주의 미래’라는 각오로,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자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고용 목표에 매몰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세대 간 고용률 격차 등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뫼소’의 최신작 ‘아가씨와 밤’에는 벽 속에 시체를 매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야기는 주인공 토마와 막심이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 졸업생 모임의 초대장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25년 전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후, 공사 중이던 체육관의 벽 속에 시체를 유기한다. 하지만 학교가 체육관을 허물어 현대식 다목적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범죄 사실이 탄로 날 유기에 처한다.

시체를 벽 속에 숨겨 거나 그와 유사한 범죄 내용을 다룬 소설은 이

벽 속의 시체

사유됐던 수범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에서도 마피아를 고용해 전 애인을 산채로 시골 빌라 시멘트 벽에 암매장한 60대 여성이 며칠 전 검거됐다. 이 여인은 애인 단편 소설의 선구자로 꼽히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일 게다.

‘플루토’(지옥의 왕)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길러 왔던 주인공 ‘나’는 술버릇이 나빠 발작적으로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내고, 며칠 후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 버린다. 양심의 가책 탓에 다른 애꾸눈의 검은 고양이를 기르지만 얼마

‘손수건’ 같은 만남의 이야기

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끝난다.

성경 롯기는 전 4장으로 된 짧은 책이다. 제1부 발단은 나오미와 롯의 귀향으로 눈물의 장이다.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된다.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는다. 왜 죽었는지 이유는 없다.

두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과부의 신세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에서 막이 열린다. 두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귀향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집 가서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다. 슬픔과 좌절,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정호승 시인 ‘지푸라기’ 전문)

제2부 전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롯의 헌신이다. 보리밭에서 일하는 롯을 만날 수 있다. 그녀는 수확을 하다 떨어뜨린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된다.

필자는 지난 수요일 광주 교도소에서 인성 교육을 했다. 30여 명의 수행자들과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만남이 있다. 만남수록 불편한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또한 ‘꽃’과 같은 만남은 피어서 향기가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시들고 떨어지면 버리고 밟히는 추한 만남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다.

권력, 금력 등 보이는 힘이 있을 때는 환영받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들고 돈도, 권력도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냉정한 사회다.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한 때는 필요해서 수첩에 기록도 하고 스마트폰에 저

장도 했지만 필요 없을 때는 지워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손수건은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맘을 씻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아스와 롯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된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영성 시간이 된 것이다.

제3부 절정은 롯에 대한 보아스의 청혼이다. 바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다. 롯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롯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한다. 그때 나오미는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한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시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제4부 대단원이다. 롯과 보아스의 혼인 및 출산이다. 절대자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 훗날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롯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독자 여러분에게 영 빛이 있다면 ‘보리밭 사랑 이야기’로 가득채워지는 봄이 되길 기도한다.

대구의 518 버스와 광주의 228 버스

시작됐다. ‘곡(哭)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친 최초의 시위였다. 그로부터 네 시간 후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이 쏜 최루탄에 김주열 군이 사망하면서 결국 4·19 혁명으로 접화된 것이다. 광주의 시대 정신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 역사적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넘어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이처럼 광주시민은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희생당하면서 시대정신을 지켜왔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국제 보상 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1960년 2·28 민주 운동은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 1700여 명이 거리로 나서 부패 정권을 치에 충실해 왔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에게 두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시대 정신’이라고 답할 것이다. 광주와 대구는 경제적·물질적 풍요보다는 시대적 가치에 충실해 왔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등과 아픔을 딛고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매 결연을 하고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키워 왔다. 달빛 동맹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 2009년 의료 산업 협약을 시작으로 2013년 달빛 동맹 강화 협약을 맺으면서 해마다 꾸준히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2014년부터 두 도시는 서로 광주 5·18 기념식과 대구 2·28 기념식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달빛 내륙 철도’ 추진에도 나섰다. 광주와 대구를 고속철도로 연결해 한 시간 생활권으로 여자는 것이다. 철도로 새 광경경제권이 형성돼 영호남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육성, 300억 원 규모의 ‘달빛 펀드’를 꾸려 영호남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달빛 동맹은 상징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두류공원에서 열린 제59주년 2·28 민주 운동 국가 기념식에는 광주시에서 처할 때마다 조국을 구하고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비슷한 점이 많은 두 도시는 그간의 갈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해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주시에서는 대구의 2·28 민주 운동을 광주에서도 되새길 수 있도록 228 버스 운행을 준비 중이다. 이 버스는 2·28 민주 운동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광주의 4·19 혁명과 5·18 사적지 등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을 경유할 계획이다.

228 버스가 도입되면 2·28 민주 운동 정신을 콘텐트화하고 스토리텔링하여 버스 내외부에 2·28 민주 운동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대구에는 이미 2·28 기념 중앙공원 앞을 오가는 518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2·28과 4·19, 5·18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접목되면서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세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광주 시민들께 사과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열린 마음, 역사의식과 함께 양 도시의 518 버스, 228 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양 도시의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연대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행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